

무법자 해파리떼 무대책 해수욕장



전남지역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을 위한 해파리 피해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정부가 머스너 여파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라는 취지로 '여름휴가 국내여행 가기' 캠페인을 전개하기만 할 뿐 정작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안전대책 등에는 손을 놓고 있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개장, 피서객들을 맞고 있는 전남지역 55개 해수욕장 가운데 해파리로부터 물놀이객을 보호하기 위한 '해파리유입방지막'이 설치된 해수욕장은 전무하다.

신안 우전·대광, 보성 울포, 고흥 남열리 해수욕장 등은 전남 대표 해수욕장으로 수십만명의 피서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지만 해파리 차단용 그물망을 설치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전남에서 지난해 잡은 해파리만 무려 1100t에 달했다. 2012년(107t), 2013년(198t)보다 급격하게 증가한 수치로, 올해는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독성 해파리떼 출현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립수산과학원도 동중국해 해파리 개체 수가 지난해보다 4배 가량 급증한 점 등

올해 개체수 4배 증가 예고 전남 지역 주의보 발령 불구 방지방 설치된 곳 전혀 없어 정부 국내여행 캠페인 무색

을 들어 예년보다 많은 맹독성 해파리의 국내 남·서해안 출현을 예고한 바 있다.

당장, 고흥·보성·장흥 등에는 해파리떼 출현율이 치솟으면서 이 일대에 '해파리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로, 고흥군의 경우 지난해 3일간 잡은 해파리만 250t에 달했다. 또 진도군 소리도 연안에는 지난 3~9일, 신안 홍도 연안은 지난 10~16일 맹독성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출현했다.

이 때문에 피서객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파리 방지방 설치에 절실하지만 정부와 시·군은 예산 타령만 하며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다.

전남지역 11개 시·군은 선박 119척과 인력 250명을 투입, 해파리 피해를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수심이 낮은 해수욕장의 경우 어선 진입이 어렵다는 점에서 피서객들

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피서객 안전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열악한 시·군 예산으로 설치가 불가능하다보니 전남도가 지난 2013년부터 해양수산부에 '해파리 유입 방지막' 설치 예산(1500만원) 지원을 요청했지만 단 한 차례도 반영되지 못했다.

해수부는 이런 상황에서 '해파리 및 이안류 피해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관련 내용이 적힌 돛자리 4000개(5000만원)를 전국 11개 시·도에 배포해 '생색내기' 대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전남 지역에도 440장이 뿌려지는데, 전남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2014년 244만173명)을 고려하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수욕장 안전 관리가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장비와 인력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공감한다"면서 "예산은 없고 지자체 해수욕장 운영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돛자리를 제작, 배포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2013년 해파리 유입 방지방이 도입된 해운대 해수욕장의 경우 1424명(2012년)에 달했던 해파리 피해자가 지난해 18명으로 급감했다.

/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차량 질주하는 새벽, 도로에 쓰러진 취객 구한 시민의 선행

새벽 시간, 도로 한가운데 쓰러진 취객을 위해 도로에서 수신호를 하며 보호조치를 한 시민의 선행이 알려지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새벽 3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고려조상계당 앞 왕복 4차선 도로 한가운데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택시서 내려 차량막고 보호

경찰차 도착하자 현장 떠나

도로 한 가운데 쓰러진 취객 사이로 차량이 아찔하게 지나가는 상황, 때마침 택시에서 내린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손을 흔들

며 도로로 뛰어들며 보호조치에 나섰다.

남성은 현장에서 10여분간 취객을 보호하다 경찰 차량이 도착하자 현장을 벗어났다. 남성의 선행은 목격자가 찍은 동영상에 담겨 공개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혈압·혈당 체크하고 예방하세요

광주시 북구 두암보건지소(소장 김은숙)는 21일 우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내 혈압·혈당·혈중지질 알기' 캠페인을 열고 복지관 방문객을 대상으로 혈압·혈당 측정 및 만성질환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비극 부른 취업사기의 늪

“돈 줬는데 왜 취업 안되나” 압박 시달리자 50대 “윗선 지키기 위해” 유서 남기고 자살

유족들 “전모 밝혀달라”

50대 남성이 채용 알선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가 “왜 취업이 안되나”는 압박에 시달리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남성은 “윗선을 지키기 위해, 푼돈 따로 사용하다가 간첩 아닌 간첩이었다. 저만의 책임으로 혼자 가니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겨 경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오전 8시30분께 광주 첨단 보건병원 앞 첨단고 아래 화물차 차고지에서 A씨(51)가 자신의 승용차에서 숨겨 있는 것을 버스기사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차량 안에는 유서가 적힌 메모지 8장과 독극물, 술이 발견됐다. A씨가 남긴 유서에는 “왜 이런 늪에서 놀았는지 돌보지 못

한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잘못된 뜻에 걸린 사실이라 생각하고 모든 지인들께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특히 경찰은 A씨 유족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A씨가 아들을 취직시켜줄 수 있다가에 2000만원을 송금했다. 취직도 안 되고 연락도 닿지 않아 취업사기로 고소하러 왔다”며 경찰서를 찾은 40대 남성의 진술을 확보, 진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숨진 A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5년 전부터 B대학원에서 카페를 운영해왔으며, 1년여 전부터 학생식당도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유족은 “유서 내용과 채용사기 피해자의 말 등으로 미뤄 채용사기의 전모를 경찰이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여수·광주 잇따라 취업사기

여수경찰은 21일 대기업에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고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4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 12일부터 3월 10일까지 아들(35)의 취업을 부탁하는 A씨(67)에게 4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A씨의 사돈(58)을 통해 자신을 정담 간부로 소개하며 “중앙당에 정치자금을 내면 대기업에 특별 채용될 수 있다”며 “절대비가 필요하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0일엔 대기업 취업 알선을 미끼로 30대 구직자에게 수 천 만 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조모(51)씨가 광주북부경찰에 구속됐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2일 광주 문흥동의 한 카페에서 모임 회원의 소개로 알게 된 A씨(37)에게 “전남의 모 대기업 노조위원장과 잘 아는 사이니 취업을 부탁해 주겠다”고 속여 두 차례에 걸쳐 3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김정희기자 chkim@

세월호 증개축 관련 한국선급 검사원 항소심도 무죄

광주고법 형사 5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검사원 정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를 인정하려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면서 “전씨가 점검 리스트 등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거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2년 10월 일본에서 도입된 세월호 증·개축 공사와 관련 선박 정기검사를 진행하면서 검사시험 결과서, 점검 체크리스트, 검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자체적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개업 식당 왜 안와” 광양서 새벽 3명이 집단폭행

광양경찰은 21일 개업한 식당에 한 차례도 오지 않았으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광양 라이온스파 조직원 김모(32)씨를 구속하고 박모(3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5월 13

일 새벽 5시 광양시 중동 S병원 앞길에서 지인 A씨(32)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다.

김씨 등은 “지난 4월에 식당을 개업한 뒤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느냐”며 시비를 걸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광양=배영재기자 byj@kwangju.co.kr

장부 허위작성 돈 쟁긴 알바생

○“노래방 아르바이트생이 주인 몰래 매출장부를 허위로 작성해 용돈(?)을 챙겨오다가 경찰서 행.

○21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박모(20)씨는 지난달 11일 새벽 1시께 광주시 동구 황금동 정모(51)씨의 K노래방에서 일일 매출장부를 허위로 기록한 뒤 현금 1만 원을 가로챈 등 최근까지 16회에 걸쳐 현금 23만 원을 빼돌려왔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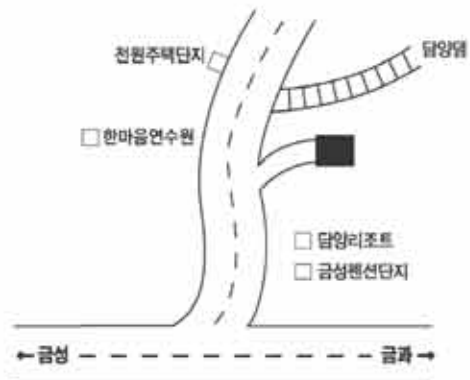
○박씨는 지난 5월 노래방에 취업한 뒤 주인이 출근하지 않는 날을 노려 범행을 저지르다가 주인 정씨가 설치한 CCTV를 확인하면서 들킨 것인데, 박씨는 “손님이 현금을 낼 때만 일부를 챙겼다”고 진술.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펜션·찾집·식당

전원주택지, 요양(병)원, 연수원 등 최고장소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 산 2-5번지
- 대 2441평, 건 882평, 임 6726평, 계획관리지역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현재 박물관, 펜션, 식당, 찾집으로 운영 연 3억이상 순수익 창출
- 차후 형질변경으로 공시지가 10억 정도 상승 가능
- 관광특구로 모든 업종 개발 가능
- 현 감정가 - 28억
- 매매 - 22억원 (법인체 인수가능, 이전비 없음)
- 주인직매 H. 010-3605-5000



현,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연 2.1%)
1년후 20억까지 대출 가능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243-6번지 서광병원 맞은편/만호초등학교 건너편

돈되는, 근린상가 매매

현재, 박스 Bar 운영으로 최고 수익!

- 7층중 7층 전체, 약 120평
- 현, 감정/시세 7억
- 대출 3억 6000만원 안고
- 매매 5억 5천만원
- 보 1억에 월 330만원 임대가능
- 60평씩 분할임대 가능
- 레스토랑/레스토랑/카페/커피점문점/호프/PC방
제츠바/노래홀/룸수주방/단란주점/7080/당구장 등 최적
- 주인직매 H. 010-3605-5000

